

윤공희 대주교 “오월단체 단합해 오월정신 계승해야”

5·18기록관 간담회 참석

“분열 아닌 하나된 마음 이어가야” 시민 보호 5·18당시 활약 재조명 정의구현사제단 시국선언 칭찬

5·18민주화운동의 산 증인이자 ‘광주의 어른’인 윤공희(99) 빅토리오 대주교가 최근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오월단체를 향해 “모두가 하나된 그날의 오월정신을 계승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을 돌며 시국선언 미사를 진행하고 있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활동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에 대해 비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기록하다”고 사제단의 행보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기록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기록관 7층 대회의실에서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일’이라는 주제로 윤공희 대주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12주년 기념 평화메달 수여식에서 메달을 받은 안성례 오월어머니집 설립자와 이기홍(2대), 윤광장(9대), 김준태(10대)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의 요청에 의해 마련됐다.

이들은 “5·18의 진정한 공로자는 윤 대주교이며 광주의 어른으로 광주를 지키신 분을 다시 한번 생전에 만나고 싶다”고 기록관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부터 계속돼 온 윤 대주교의 활약이 재조명됐다.

참석자들은 “윤 대주교는 5·18민주화운동의 공신이다”면서 “그는 온몸으로 광주시민을 보호해 줬다. 광주시민들은 그의 품에서 보호받고 끝까지 저항할 수 있어 오늘날 명예로운 광주가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주교는 신근부가 5·18을 폭도에 의한 것으로 몰고가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다.

1980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재임 당시 5·18민주화운동을 두 눈으로 목격한 그는 직접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 참혹한 광주 실상을 알렸다.

서울에서 미사가 있어 1980년 5월 19일 상경한 윤 대주교는 “사람이 죽었다”는 김 추기경의 질문에 “내가 건물 아래서 피 흘리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나는 믿겠다”고 대답했다. 윤 대주교는 특히 광주에 있는 미국인 신부와 광



윤공희 빅토리오 대주교가 지난달 30일 5·18기록관 6층에 조성된 1980년 당시 대주교 집무실을 둘러보다 전시된 사진에서 젊은 시절 자신을 찾아 가리키고 있다.

주 미국문화원장을 통해 미국 대사에게 ‘5·18은 계엄군의 잔혹한 폭력 때문에 발생했다’는 내용을 알려 5·18이 폭도에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전했다. 1980년 5월 24일에는 광주대교구장 명의로 전국 교구청 산하 모든 교회에 사목서한을 보냈고 이서한은 신자들 앞에서 낭독됐다.

5·18 당시 광주에서 학살을 자행하는 계엄군에게도 일침을 놓았다.

광주 상공을 날며 선무방송을 하는 헬기에서 광주 시민이 폭도라는 내용의 방송이 나오자 윤 대주교는 전남북계엄본소장인 소준열 장군에게 광주시민은 ‘폭도’가 아니라 폭도라는 단어를 빼라고 요구했다.

1981년에는 직접 전두환을 만나기도 했다. 5·18 내란 혐의로 고(故) 정동년 5·18재단 이사장 등 5명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직접 전두환을 만나 ‘사면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윤 대주교는 전두환은 “군인들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사면) 할 수 있겠냐”면서 “입장을 바꿔 대주교님이 대통령이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회상했다.

그가 “당신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형으로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잡으면 뭇 탈이 있을 것이다”고 이야기했지만 전씨는 정확한 답변

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활약상에도 불구하고 윤 대주교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예로 들며 “5·18 당시 금남로에서 어느 젊은이가 군인들의 방망이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때 차마 어찌지 못했던 게 사마리아인에 등장하는 랍비처럼 후회가 된다”면서 “내가 한 일은 없다”고 자신을 낮췄다.

최근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오월단체에 대해 한마디를 부탁하자 윤 대주교는 단체들에게 “역사는 진실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분열보다는 평화스럽게 하나가 되는 마음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을 예로 들면서 계엄군에 대해서도 “독일은 나치의 죄를 정화하게 밝히고 그것을 뒤우치고 후세에 알리고 있다”면서 “계엄군도 이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활동에 대해서도 칭찬했다.

한국 천주교 생존 주교 가운데 최고령인 윤 대주교는 지난 2000년 광주대교구에서 정년을 맞아 은퇴했으며, 지난해 8월 27일에는 천주교 영주 대건교회에서 백수(白壽·99세) 감사 미사가 한국 최초로 봉헌됐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보 시스템 가동

신속한 서비스 계획 수립·실시간 처리결과 모니터링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자체 정보 시스템을 3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신속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실시간 처리 결과 모니터링을 위해 도입했다.

그동안 돌봄 콜(1660-2642) 상담 내용이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행정복지센터로 전달됐는데, 앞으로는 정보시스템 입력과 함께 복지센터에 알림 메시지가 뜨게 된다. 업무 담당자들은 서비스 가정을 방문한 결과를 별도 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무용 태블릿 PC를 보급했으며, 이용자는 지원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서비스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질병, 사고,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기존 제도권 서비스를 연계하고 부족한 부분에는 가사, 식사, 동행 등 7대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4월 1일 개시 이후 현재 4360건의 돌봄 요청이 접수되고 8936건 현장 방문 활동이 이뤄졌으며, 누적 5144명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여성 공무원 비율 50% 넘었다

전국 평균 49.9% 역대 최고

2022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비율이 49.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부산, 서울, 인천, 광주 등 7개 시도에서는 여성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

행정안전부는 2일 2022년 기준 전국 지자체 243곳의 여성 공무원 인사 통계를 발표했다.

지자체 여성 공무원은 49.4%(15만2509명)로 2021년(14만5379명·48.1%)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모두 포함해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55.1%), 서울(53.2%), 인천(52.7%) 순이며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다만 5급 이상 관리직급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아직 낮다. 지자체 5급 이상 2만5908명 중 여성은 7109명(27.4%)으로, 전년(6천171명·24.3%)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0.6%로 가장 높고, 울산(36.4%), 광주(33.1%)가 그 뒤를 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영록 지사,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 점검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30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인 여수 돌산읍 진모자구를 찾아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방문객 편의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여수 돌산읍 진모자구와 여수박람회장, 화정면 개도, 남면 금오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개최하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30개국 200만 명이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승인 국제행사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2021년 국제행사 승인 이후 종합기본계획 수립,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 등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돌산읍 진모자구 주행사장에서는 무한한 섬의 가치를 상징하는 무한대 기호 모양으로 구성된 8개 전시관에서 섬의 탄생부터 미래가치를 공유하

는 계기가 마련된다. 특히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공유하고,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실감형 디지털 전시관을 조성할 방침이다.

부행사장인 여수세계섬박람회에서는 국가기념일인 8월 8일 섬의 날 행사, 국제식품포럼, 세계섬도시대회 등 각종 학술대회를 열어 섬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한다. 또 화양면 개도와 남면 금오도는 해양레포츠, 가족레크, 섬어촌문화센터, 비렁길 탐방 등을 통해 섬 전통문화·레저·웰니스 체험 공간으로 조성된다.

김영록 지사는 “주 행사장을 여수시민이 활용 가능한 친환경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섬투어프로그램 운영 등 섬박람회의 특징을 잘 살려 이번 행사 섬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2026 여수엑스포에 이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도 여수의 위상을 높이는 국제행사로서 치러지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폐광 3곳 토양정화에 2029년까지 780억 투입

화순탄광부터 하반기 정밀조사...수질오염·지반침하 확인

118년 역사의 화순탄광이 지난 30일 산업화 시대의 영광을 뒤로 하고 조기 폐광할 가운데 대한석탄공사 산하 폐광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광해 방지 사업이 본격화한다.

2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석탄공사 조기 폐광에 따른 토양 오염 정밀 조사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원 및 정화 사업이 진행된다. 정밀 조사는 주변 농경지와 광산 사업 부지로 나뉘 이뤄진다.

주변 농경지에서는 최대 60cm 깊이까지 땅을 파 채취한 토양 샘플을 확보해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 6종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광산 사업 부지에서는 중금속에 더해 유류 오염 여부까지 확인한다. 2024년, 2025년 차례로 폐광할 예정인 장성탄광과 도계탄광은 각각 2028년, 2029년까지 토양 정화 작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탄광의 토양 오염을 복원해 광해를 방지하는 데 약 78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공단은 추산했다. /연합뉴스

하반기부터 2029년까지 화순탄광, 장성탄광, 도계탄광 3곳에서 순차적으로 토양 정밀 조사와 복원·정화 사업이 추진된다. 이미 문을 닫은 화순탄광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토양 정밀 조사가 진행된다. 이어 실시 설계를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 상반기까지 본격적인 토양 복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하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금당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월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올포해수욕장인근)

- 경관 수려, 다세대, 숙박시설·펜션 등 적합
- 445평과 210평, 도로 증용, 평당 100만원

무안군 운남면 내리 3,940㎡ (1,191평)

- 공시가 45억 527천원 전원생활적합. 1억1,900만원

무안군 계곡면 강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점 땅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대가 1억6천

화순군 동면 장동리 (776평)

- 조용한 생활적합, 7,2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항한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5,500 (평당 10,778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第37期 決算公告

財務狀態表

(2023년 3월 31日 現在)

科目	金額	科目	金額
資 産		負 債	
1. 流動 資 産	15,367,735.525	1. 流 動 負 債	3,121,911.783
(1) 當 座 資 産	11,291,239.850	1. 買 入 債 権	1,575,087.383
1. 現 金 及 現 金 性 資 産	1,546,592.585	2. 未 支 給 金	584,925.637
2. 預 期 金 融 商 品	4,277,990.280	3. 先 受 金	17,029.032
3. 有 形 資 産	4,712,751.502	4. 預 受 金	99,558.898
貨 物 充 當 金	▲56,550.078	5. 未 支 給 費 用	737,211.181
4. 未 收 金	4,433.000	6. 販 賣 保 證 當 金	108,099.052
貨 物 充 當 金	▲44,330	II. 非 流 動 負 債	36,482.575
5. 未 受 收 金	83,726.572	1. 移 延 法 人 稅 負 金	36,482.575
6. 先 給 金	3,454,110	負 債 總 計	3,158,394.358
7. 先 給 費 用	35,973.187	資 本	
8. 其 他 的 當 座 資 産	428,081.064	I. 資 本	11,900,000.000
9. 流 動 性 移 延 法 人 稅 負 金	254,831.958	1. 普 通 株 資 本	11,900,000.000
(2) 在 庫 資 産	4,076,495.675	II. 利 益 積 立 金	8,467,894.935
1. 製 品 評 價 損 失 充 當 金	745,377.656	1. 法 定 積 立 金	71,850.000
2. 在 工 品	▲172,966.666	2. 任 意 積 立 金	453,000.000
在 工 品 評 價 損 失 充 當 金	1,444,005.526	3. 未 處 分 利 益 積 立 金	7,302,044.935
3. 原 材 料	▲31,347,407	資 本 總 計	20,367,894.935
原 材 料 評 價 損 失 充 當 金	39,374.193		
4. 貯 藏 品	252.605		
5. 未 審 材 料	8,158,553.768		
II. 非 流 動 資 産	8,158,465.768		
(1) 有 形 資 産	424,405.973		
1. 土 地	10,238,171.481		
2. 建 物	▲5,158,543.640		
減 價 償 却 累 計 額	2,479,124.699		
3. 構 築 物	▲1,248,675.603		
減 價 償 却 累 計 額	22,645,297.436		
4. 機 械 裝 置	▲21,869,923.383		
減 價 償 却 累 計 額	222,578.866		
5. 車 輛 運 搬 機 具	▲215,825.773		
減 價 償 却 累 計 額	2,356,694.113		
6. 工 具 及 器 具	▲2,313,441.278		
減 價 償 却 累 計 額	1,221,399.310		
7. 備 品	▲1,094,410.006		
減 價 償 却 累 計 額	471,613.573		
8. 建 設 中 的 資 産	88.000		
(2) 其 他 非 流 動 資 産	88.000		
1. 保 證 金	88.000		
資 産 總 計	23,526,289.293	負 債 及 資 本 總 計	23,526,289.293

2023년 7월 3일
韓國新光마이크로애क्ट로닉스 株式會社
代表理事 社長 坂口 健一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37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윤윤주

분할 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원비기술개발(당사)은 2023년 06월 30일 개편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사의 원비기술개발(당사)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원비기술(당사)을 설립하고 당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당사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아니하며, 신설회사는 당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책임 포함)만을 부담하고 당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는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당사도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책임 포함)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회사분할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가 있은지 채권자들에게서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 본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3일
"갑" 주식회사 원비기술공사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서1길 50-3, 2층1호 (여중)
대표이사 조연우
"을" 주식회사 에이이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봉황길 45-98, 2동 대표이사 박수중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방 이규주(540326-XXXXXX)
• 최종주소: 광주 서구 쌍촌로22번길 10 (쌍촌동)
피상속인 방 이규주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비민 2023.년.488호로 신청하여 2023년 6월 1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유증자는 항고취하함으로써 신청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7월 3일
• 상속인: 1. 이은경(81112-XXXXXX) 광주 북구 양림1로 52, 107동 404호 (연계동, 대령로제방인)
2. 이은혜(830808-XXXXXX) 전북 고창군 부안면 인촌로 950-12
3. 이종배(050524-XXXXXX)
4. 이은미(080718-XXXXXX)
상속인 3, 4 주소: 광주 북구 강변대로 33, 3동 108호(간화동, 금호타운)
• 신고기간: 2023. 7. 3. ~ 2023. 9. 12.
• 재판청고주소: 상속인 1. 이은경의 주소

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3년 06월 30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1주의 액면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각1주를 분할하여 1주의 액면금액 금1,000원의 주식 각10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구주권을 가진 주주님과 질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주권을 당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3일
주식회사 에코월드팜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에코산단6로 90 대표이사 오석중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광주일보 문화매체대전
광주일보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행구독 220-0550